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게 5월역사 살리는 길”

옛 도청 복원 시민 공청회

13일 광주시 동구 옛전남도청(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열린 ‘옛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시민공청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광주시민사회가 ‘옛도청 복원’을 둘러싸고 벌였던 수년간의 갈등을 반영하듯 열기가 뜨거웠다.

5·18단체 회원과 광주시청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18과 문화전당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200여명이 공청회가 시작되는 오후 2시 이전부터 몰려들었다.

공청회 시작 전 참석자들 사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5·18기념사에서 ‘옛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복원하고 협의하겠다’고 했으니,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려나 보다”는 기대가 엿보였다.

행사는 5월 영령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어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도민 대책위(대책위)’ 상임위원장단 인사말, 기관별 향후 추진계획 발표, 질의응

“민주평화교류원 해체하고 5·18기념관 만들자” 제안 문체부 실장 “광주시와 사전협의 않고 철거 죄송” 사과

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대책위원장은 “이 자리를 통해 옛도청이 ‘이 정도면 됐다’는 말이 나오도록 복원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은 윤 시장은 “도청을 지키려고 280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송구스럽다. 5월 영령 앞에 부끄럽다”고 머리를 숙였다.

차분하게 진행되던 공청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가 입장 발표와 향후계획을 밝히는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광주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철거한 것은 죄송하다.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면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고쳐나갈 것이다”며 “광주시민들의 고난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복원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사회 의견 물어 옛도청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일방적으로 훼손됐다.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단체와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이전부터 옛전남도청 원형 훼손의 ‘장본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관료들을 지목하면서 “철저히 광주시민사회 의견을 배척했다”, “5·18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권세력의 의도적 훼손 아닌가”라는 강경한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세력 교체 후 광주를 방문한 문체부 고위 관계자가 ‘원론적 답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은 “학살을 어떻게 문화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나... 역사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최선책”이라며 “문체부는 민주평화교류원을 포기하고 5·18 기념관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손뼉을 쳤다.

장현권 목사는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도청’을 보고 싶어한다. 근대 옛도청을 보면 5·18 당시 모습이 하나도 없다, 보여줄 게 없다”고 성토했다.

공청회에선 한 시민이 “옛도청을 복원하면 민주평화교류원(예술관)은 사라지는데 어떻게 하니”라며 대책위 안과 다른 입장을 밝혔으나 “역사 현장을 되살리지 말자는 말인가”라는 5·18단체 회원들 목소리에 파문했다.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 나선 정춘식 5·18유족회장은 “옛전남도청은 복원이 우선이다. 단순 건물 복원뿐 아니라 돌아가신 열사들의 정신까지 복원해야 한다. 새정부와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잘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



‘임 행진곡’ 부르며 복원 염원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1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청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임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광주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철거한 것은 죄송하다.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면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고쳐나갈 것이다”며 “광주시민들의 고난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복원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철골 구조물 없애고 80년 당시 모습 복원 경찰청·무기고·연결통로 등도 원형대로

대책위 옛 도청 복원안

광주시가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는 13일 광주시 동구 옛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옛 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도민 대책위원회(대책위)가 발표한 옛 전남도청의 ‘5월 모습으로 원형복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발표한 안은 지난 4월17일 4차 위원장단 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사실상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에 포함된 모든 건물이 복원대상이다. 옛 전남도청 본관·회의실·별관, 상무관, 경찰청 본관·민원실 등 사실상 민주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6개 건물이다.

원형 복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청 본관과 도청 민원실의 경우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방송실·회의공간과 식사공간, 무기고, 시민군 퇴로로 쓰인 만큼 본관과 민원실 모두 원형을 살리고 2층 연결통로까지 복원한다는 구상이다.

옛 도청별관은 본관과 별관을 연결한다. 금남로에서 도청건물을 보면 국립아시아



옛 도청 복원 조감도

아문화전당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내걸린 철골 구조물과 일부 건물만 남았는데 철골 구조물 부분은 본관 연결통로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청건물 뒤편 경찰청, 경찰청 민원실 건물 역시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게 바뀌었

지만 각각 계엄군 첫 진입장소(앞마당은 희생자 신원확인 장소), 시민군 동선으로 쓰였던 만큼 원형을 살리자는 주장이다. 5·18당시 신원 확인된 희생자 안치장소로 쓰였던 상무관 역시 원형을 살리자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김영정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옛 전남도청이 5·18을 상징하는 공간인 만큼 1980년 5월 당시 모습을 최대한 되살려야 한다는 게 대책위 입장”이라며 “원형복원 후 5·18관련 콘텐츠를 넣어 명실상부한 ‘5·18 기념관’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별도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내달 화물칸 수색...선체 3D 촬영

정밀점검 대비하고 원형 기록

세월호 선체가 3D방식으로 촬영된다. 추후 이뤄질 세월호 정밀점검에 대비하고, 세월호 원형도 기록해놓기 위해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는 13일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칸 수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선조위는 이달 말까지 3~5층 객실 수색을 끝낸 뒤 다음달부터 1~2층 화물칸 수색에 들어간다. 선조위는 특히 화물칸 수색을 시작하기 전 레이저 빔을 활용, 화물칸을 포함한 선체 내·외부를 3D방식으로 정밀 촬영하기로 했다.

일단 촬영으로는 세밀한 촬영이 어려운 만큼 3D 방식으로 촬영한 뒤 이를 통해 정밀 점검을 하기 위해서다. 3D 방

식으로 촬영을 하면 바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좌현과 화물칸 내부도 정밀 촬영이 가능하다.

일단 화물칸 수색에 들어가면 선체 이곳저곳에 많은 구멍을 뚫고 절단해야 하는 만큼 선체 원형 모습 기록 차원에서 3D영상 촬영이 필요하다고 선조위는 설명했다.

해양수산부와 선체 정리 업체 코리아 샵베지는 지난주 하늘을 바라보는 우현(상부) 4곳에 구멍을 내고 화물칸으로 들어가 내부 상태를 점검했다.

화물칸에는 차량, 컨테이너 등 화물과 진흙이 뒤엉켜있고 진흙과 지장물이 최고 7m 높이를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조위는 해수부, 미수습자 가족과 논의해 조만간 화물칸 수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영기자 young@

근로정신대 2차 손배소 3년만에 16일 선고

미쓰비시 시간끌기로 지연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시간 끌기로 지연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2차 소송 선고가 3년 만에 이뤄진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오는 16일 오후 1시 50분 광주지법 403호 법정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 3명과 징용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은 2014년 2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6억원 상

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은 소장 부실 등을 들어 미쓰비시 중공업이 고의로 시간을 끌면서 열리지 못하다가 1월 첫 재판이 열렸다.

공무원 전담에서는 징용 피해자, 유가족 등 11명이 2012년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은 피해자들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3차 소송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이 열렸으며 8월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

체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단순히 음주 여부를만 확인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

일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돼 있고, 운전자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면 측정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은 확정됐다. /연합뉴스

당첨된 마권 바닥에 떨어지자...반환 시비 끝 서로 주먹질



당첨금

○“당첨된 마권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주먹을 휘두른 60대가 경찰서행.

○1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63)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5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김모(49)씨의 마권이 자신의 발밑으로 떨어지자 이를 주위 돌려주지 않았다가 시비가 붙어

김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1만원짜리 마권이 30배가 넘는 금액에 당첨되자 이를 자랑하던 김씨가 마권을 떨어뜨렸는데, 마권을 주는 박씨가 돌려주지 않고 장난을 하자 김씨가 박씨에게 욕을 했고, 이에 박씨는 이성을 잃고 김씨를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 **17억**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법원 경매/공매】

토 지	근 린 시 설
▶ 남구 주월동 백운교차로 인근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토지 124평 감정가 348,000,000	▶ 서구 쌍촌동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사무실 8m도로점 토지 168평 건물 86평 감정가 493,000,000 최저가 493,000,000
▶ 남구 화장동 농막마을내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04평 감정가 42,000,000	▶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115평 감정가 1,227,000,000 최저가 1,227,000,000
▶ 나주시 죽림동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454평 감정가 287,000,000 최저가 287,000,000	▶ 북구 신안동 숙박시설 토지 357평 건물 986평 감정가 5,143,000,000 최저가 3,600,000,000
▶ 나주 남평읍 교촌리 도시지역 생산녹지 대로점 토지 1182평 감정가 715,000,000 최저가 501,000,000	▶ 남구 서동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79평 건물 115평 감정가 522,000,000 최저가 366,000,000
▶ 나주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구 토지 10399평 감정가 2,678,000,000 최저가 2,678,000,000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인근 토지 128평 건물 251평 감정가 885,000,000 최저가 619,000,000
▶ 해남 산이면 대진리 신농마을인근 대로점 토지 6042평 감정가 482,000,000 최저가 337,000,000	▶ 화순 도곡면 천암리 호텔 토지 978평 건물 1295평 감정가 3,787,000,000 최저가 993,000,000
▶ 고흥 풍암면 매곡리 바닷가인근 대로점 학교부지 토지 1006평 감정가 58,000,000	▶ 동구 충장로5가 토지 65평 건물 감정가 436,000,000 최저가 218,000,000
공 장	일 반 물 건
▶ 장성 서삼면 송현리 내연마을인근 계획관리 자연취락지구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665,000,000	▶ 북구 운암동 운암동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 나주 문평면 옥당리 문평산업단지인근 계획관리 토지 1416평 건물484평 감정가 320,000,000 최저가 224,000,000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9층 건물 29평 매매가 63,000,000
	▶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상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 광산구 비야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010-3070-2147 유 여 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